

# 완도군청 역도실업팀, 올해 첫 전국 대회서 메달 12개 획득

금5·은4·동3 획득에 이어 최우수 선수·최우수 감독상까지 수상  
서호철 감독 "입단 후 첫 전국대회... 좋은 성과 내 대견하고 감사"

완도군청 역도실업팀 선수단은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강원 양구 용화체육관에서 열린 '2021년 전국 실업 역도 선수권 대회' 및 '제69회 전국 춘계 남자 역도 경기대회'에 참가하여 금메달 5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 총 12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이달러 남자 일반부 최우수 선수상에 이양재 선수가, 최우수 감독상에 서호철 감독이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되었다. 여자 71kg급에 출전한 이지혜 선수

는 인상 91kg 2위, 용상 109kg 2위, 합계 200kg 2위로 은메달 3개를 획득했다. 남자 109kg급에 출전한 이양재 선수는 인상 186kg 1위, 용상 230kg 1위, 합계 416kg 1위로 대회 최고 기록권을 달성하여 금메달 3개와 함께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했다.

남자 89kg급에 출전한 강민우 선수는 인상 149kg 1위, 용상 181kg 2위, 합계 330kg 1위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획득했다.

남자 102kg급에 출전한 김경민 선수는 허리 부상으로 인해 참가에 의의를 두고자 했으나 인상 80kg 3위, 용

상 100kg 3위, 합계 180kg 3위로 동메달 3개를 획득하여, 다음 대회에서 더욱 좋은 성적이 기대되고 있다.

완도군청 역도실업팀의 서호철 감독은 "완도군청 역도실업팀 입단 후 첫 전국대회 참가라는 부담감이 컸고, 무관중 경기라 선수들이 많은 응원을 받지 못해 걱정했는데 좋은 성과를 내줘서 대견하고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코로나19 여파로 훈련 여건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준 서호철 감독과 선수들에게 감사하다."고 격려하고 "완



도군청 역도실업팀이 지속적으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군에서는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갖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완도군청 소속 직장 운동 경기부 역도실업팀은 지난 2015년에 창단

하여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완도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완도=이민혁기자

## '첫 선발 출전' 김하성, 2안타 1타점 활약...SD 3연승 견인

시즌 성적 5타수 2안타

김하성(26·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메이저리그 첫 선발 출전 경기에서 멀티히트를 작성했다. 부진했던 시범경기에 대한 우려도 잠재웠다.

김하성은 4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펫코파크에서 열린 2021 메이저리그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경기에 6번 타자 2루수로 선발 출전, 4타수 2안타 1타점을 기록했다.

시즌 성적은 타율 5타수 2안타(타율 0.400) 1타점이 됐다.

지난 2일 애리조나와 개막전에 대타로 출전, 빅리그 데뷔전을 치렀던 김하성이 메이저리그 선발 출전 기회를 잡은 건 처음이다.

1-0으로 앞선 1회 2사 1, 2루에서 첫 타석을 맞았다.

김하성은 애리조나 선발 케일럽 스미스의 초구와 2구째 직구를 모두 지켜보며 2스트라이크에 몰렸다. 3구째 바깥쪽 직구는 파울로 견어냈다.

불리한 볼카운트에서도 침착했다. 김하성은 볼 3개를 연달아 골라내며 풀카운트 승부까지 끌고 갔다. 결국 7구째 91.8마일의 바깥쪽 직구를 공략, 좌전 안타를 날려 2루 주자 윌 마이어스를 불러들였다.

김하성의 빅리그 첫 안타와 타점이 나온 순간이었다. 후속 호르헤 마테오의 내야 안타에 2루를 밟은 김하성은 빅터 카라티나가 삼진으로 물러나며 득점은 올리지 못했다.

감을 잡은 김하성은 두 번째 타석에서도 안타를 터뜨렸다. 4-0으로 앞선 3회 선두타자로 나선 김하성은 스미스의 3구째 89.6마일 직구를 받아쳐 이번에도 좌전 안타를 날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김하성이 4일(한국시간) 미국 샌디에이고 펫코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경기에서 1회 적시타를 날리고 있다.

렸다. 이후 타석에서는 범타로 돌아섰다. 4회 2사 1, 2루에서 바뀐 투수 라일리 스미스와 풀카운트 접전 끝에 삼진으로 물러났다. 7구째 싱커는 스트라이크존을 살짝 벗어난 것으로 보였지만 구심은 루킹 삼진을 선언했다. 김하성도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더그아웃으로 향했다.

6회 2사 2루에서는 1루수 뜬공으로 잡혔다. 김하성은 7회초 수비 때 투수 라이언 웨더스와 교체돼 이날 경기를 마무리했다. 지난 시즌까지 KBO리그에서 뛰었던 김하성은 지난 1월 샌디에이고와 계약, 메이저리그 도전에 나섰다.

올해 시범경기에서는 타율 0.167(42타수 7안타)로 다소 고전했다. 그러나 막판 6경기에서 4안타를 때려내는 등 조금씩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본격적인 정규시즌이 시작되자 첫 선발 출전 경기에서 멀티히트

를 때려내며 눈도장을 찍었다. 샌디에이고도 7-0으로 이겨 기분 좋은 개막 3연승을 달렸다.

1회 매니 마차도의 선제 우월 솔로포로 앞서간 샌디에이고는 곧바로 나온 김하성의 적시타로 한 점을 보탤다. 2회에는 마이어스가 2타점 2루타로 4-0, 달아나는 점수를 뽑았다. 샌디에이고는 계속해서 점수를 쌓았다. 4회에는 마차도의 적시타로 도망갔고, 6회에는 마이어스와 제이크 크로넬워스가 연속 2루타를 날리며 7-0을 만들었다.

샌디에이고 선발 조 머스그로브는 6이닝 동안 안타 3개만 내주며 무실점으로 애리조나 타선을 완벽 제압했다. 삼진은 8개를 속아냈다.

지난 1월 트레이드로 샌디에이고 유니폼을 입은 그는 샌디에이고 데뷔전에서 선발승까지 따냈다. 두 번째 투수로 나선 웨더스도 3이닝 1피안타 3탈삼진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세이브를 수확했다.

뉴스

## 텍사스, 2경기만에 25실점 마운드 붕괴...양현종에 기회 올까

코로나19로 인해 텍스 스쿼드 도입...기회 생기면 합류 가능



텍사스 레인저스의 마운드가 개막 2경기만에 붕괴됐다. 메이저리그 입성을 노리는 양현종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균열이다.

텍사스는 4일(한국시간) 2021 메이저리그 캔자시티 로열스와 경기에

서 4-11로 완패했다. 선발 아리하라 고헤이는 5이닝 3실점으로 버텼다. 그러나 마운드를 이어 받은 조시 스포츠가 아웃카운트를 하나도 잡지 못하고 3실점 하는 등 불펜 투수 4명이 3이닝 8실점으로 무너졌다.

텍사스는 2일 캔자시티와 개막전에서 10-14로 패했다. 선발 카일 김슨이 1/3이닝 5실점으로 조기 강판된 후 6명의 구원진이 9실점을 더했다.

단 2경기 동안 텍사스가 내준 점수는 25점. 두 경기에 나선 텍사스 투수 9명 중 실점하지 않은 선수는 한 명도 없다.

휘젓기는 텍사스 마운드는 양현종에게 '기회'다. 양현종은 텍사스의 26인 개막 로스

터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텍스 스쿼드에 등록됐다.

텍스 스쿼드는 코로나19로 인해 도입된 규정이다. 선수 개인 이동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텍스 스쿼드에 든 선수는 원정 경기 기간 빅리그 팀과 동행, 선수단과 훈련을 함께한다. 텍사스 로스터에 변화가 생기면 곧바로 빅리그 팀에 합류가 가능하다.

텍사스가 부진한 마운드에 대한 해결책을 로스터 변경으로 택한다면 텍스 스쿼드에 올라있는 양현종에게도 빅리그 진입의 문이 열릴 수 있다.

지난 2월 텍사스와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소속에 따라 연봉 등이 달라지는 스플릿 계약을 맺은 양현종은 초정선수 신분으로 메이저리그 시범경기 투수 소화를 했다. 5경기에서 10이닝을 소화하며 6실점을 기록했다.

## 무안초 핸드볼팀, 국대푸드 먹고 태극마크 꿈 영글다

전남체육회, 스포츠프드트럭 사업 전남 7개 학교로 진행



"김은아 선배처럼 훌륭한 국가대표로 성장하겠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먹는 음식을 경험해보니, 그야말로 힘이 절로 납니다"

'핸드볼 전통명가' 무안초등학교(학교장 정은택) 핸드볼 남·여주부 주장을 각각 맡고 있는 김도원(남), 조은채(여) 선수의 각오다.

전라남도체육회(회장 김재무)가 대한체육회로부터 따낸 공모사업의 2021년 스포츠프드트럭 사업이 1일 오후 3시부터 무안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전남지역 7개 학교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

스포츠푸드트럭 사업은 대한체육회가 스포츠 꿈나무들에게 미래의 국가대표 선수로 도약하도록 동

기를 부여하고자 운동부 학생들에게 건강·간식 키트 제공 및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이날 무안초등학교 핸드볼부에 제공된 간식키트는 성장기 학생을 위한 떡갈비 스테이크, 근육 단련을 위한 닭가슴살 스테이크 등이 제공됐으며, 건강키트는 청소년 선수들에게 인기있는 탕뭉치·푸시업바 등의 물품이 지원됐다.

무안초등학교 핸드볼부 박해선 교사는 "대한체육회 및 전라남도체육회의 도움으로 우리 학생 선수들에게 국가대표 꿈을 키워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돼 너무도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더욱

더 선수들을 지도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좋은 선수로 육성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정은택 무안초등학교 교장은 "무안초 핸드볼팀은 지난 1973년 창단된 핸드볼 전통명가"며 "특히 우리학교 출신인 김은아 선수가 요즘 TV를 통해 무안초를 비롯하여 핸드볼부를 널리 홍보해줘 핸드볼부에 대한 애착이 더욱 커졌는데, 스포츠프드트럭 사업까지 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김재무 전라남도체육회장을 대신하여 이날 행사에 참석한 조정만 체육진흥처장은 "어린 선수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관심과 지원을 넓혀야한다는 책임감을 더욱 가지게 됐다"며 "우리도 선수들에게 스포츠프드트럭 사업은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체육회는 전국 50개소 선정 중 7개를 최종 선정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에따라 1일에는 무안초와 광남초(16:30) 야구를 비롯하여 목포제일중 축구·볼링(29명), 다시초 스키(30명), 영암초 수영(16명), 장성 삼계중 사격(10명), 함평 학다리고 레슬링(12명) 등이 기회를 가졌다.

무안=이기성기자

## ISU "한국 피겨 男 싱글, 베이징올림픽 출전권 1+1장"

여자 싱글은 2장 확정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 결과를 바탕으로 한 2022년 베이징동계 올림픽 출전권 배분 현황이 발표됐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은 2일(한국시간) 베이징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출전권 각국 획득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달 열린 2021 ISU 세계피겨선수권대회를 통해 남자 싱글 1+1장, 여자 싱글 2장을 따냈다.

ISU가 개정된 규정과 세계선수권대회 결과에 따라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권을 배분한 결과 남자 싱글에 걸린 30장 가운데 23장이 조건을 충족한 국가에 나누어 주어졌다. 여자 싱글은 30장 중 24장이 확정됐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까지 ISU는 올림픽 피겨 남녀 싱글에 걸린 30장의 출전권 중 24장을 세계선수권대회 성적에 따라 나눠주고, 나머지 6장씩은 올림픽 추가 자격 대회인 네벨혼 트로피를 치러 배분했다.

세계선수권대회에 3명이 출전할 경우 상위 2명의 순위 합이 13 이내면 3

장, 14~28 사이면 2장, 28을 넘기면 1장을 줬다.

2명이 출전하면 2명의 순위 합이 13 이내면 3장, 14 이상 28 이하면 2장, 28을 넘기면 1장을 부여했다. 1명이 출전해 2위 이상에 오르면 3장, 10위 내에 포함되면 2장을 나눠줬다.

하지만 ISU는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난 뒤인 2018년 6월 규정을 손질했다.

2장 또는 3장의 출전권을 확보했다. 라도 세계선수권대회 프리스케이팅 출전자 수 2명 또는 3명이 되지 않으면 출전권 획득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다.

확보한 출전권 수에서 세계선수권대회 프리스케이팅 진출자 수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네벨혼 트로피를 통해 다시 따낼 기회만 준다.

한국에서는 지난 3월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세계피겨선수권대회 남자 싱글에 차준환(고려대)이 홀로 출전했다.

차준환은 합계 245.99점으로 전체 10위를 차지했지만, 세계선수권대회 프리스케이팅에 나선 선수가 1명 뿐이라 1+1장을 확보한 것으로 결정됐

다. 한국은 차준환을 제외한 다른 남자 싱글 선수가 오는 9월 독일에서 열리는 네벨혼 트로피에 출전, 조건을 충족하는 순위 내에 들어가 베이징동계 올림픽 남자 싱글에 2명을 출전시킬 수 있다.

한국 여자 싱글의 경우 베이징동계 올림픽 출전권 2장 획득이 확정됐다.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싱글에서 한국 대표로 출전한 이혜인(16·세화여고)과 김예림(18·수리고)은 각각 193.44점, 191.78점으로 10위, 11위에 올랐다.

두 선수의 순위 합이 28 이하로, 세계선수권대회 프리스케이팅 출전자 수 2명이라 2장이 주어지게 됐다.

베이징동계올림픽 피겨 남자 싱글 출전권 3장 획득을 완전히 확정된 나라는 일본 뿐이다. 이외에 미국과 러시아가 2+1장을 얻었다.

캐나다와 프랑스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1+1장이다.

여자 싱글에서는 러시아와 일본이 3장 획득을 확정지었다. 미국은 2+1장을 얻은 상태고, 벨기에와 오스트리아가 1+1장을 따냈다.